



남원시 인월면, 전체 주민들에 마스크 배부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KF94 등급의 마스크 27,300장과 주민회합을 담당하는 서한문을 전체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 이라고 3일 밝혔다.

인월면은 "최근 인월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줄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확산 차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은주 인월면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의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이 누구를 닮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며,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이 가까이 따뜻하게 화합하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두 기자



서전주 새마을금고, 사랑의 줌도리 성금 기탁

서전주새마을금고(이사장 박삼순)는 지난 22일 서신동주민센터(동장 김선중)를 방문해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랑의 줌도리 성금 5백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신동 동네복지기금으로 기탁했다.

김선중 서신동장은 "소중한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017년부터 매년 사랑의 줌도리 기부금 5백만 원을 동네복지기금으로 기부해오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이웃돕기성금 150만 원을 추가로 기탁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기쁨이 취약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임용시험 77명 합격 '기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서 'A등급' 획득

전주대 사범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1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7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사범대학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 온 평가로, 이번 5주기 평가는 교육여건, 교육과정, 학생지도체계 구축, 전문교원 확보율 등의 영역에서 전국 4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주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11개 학교만 선정된 'A등급'을 차지하며 교육부장관을 수상하며 전국 상위 수준의 교원양성 기관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주대 사범대학은 재학생 강의 만족도, 학생지도체계 구축 및 교육실습체계 운영, 교원임용률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대는 임용시험에서 매년 꾸준히 7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77명을 배출했다. 학과별로는 가정교육과 13명, 중등특수교육과 13명, 수학교육과 11명, 영어교육과 9명, 한문교육과 7명, 국어교육과 3명, 과학교육과 2명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도 상담심리학과 10명, 문헌정보학과 5명, 음악·공연예술·기계자동차 3명, 교육대학원에서 1명이 합격했다. 특히, 가정교육과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모집하는 6명이 모두 전주대 출신이다.



전주대 사범대학은 임용준비 과정에서 심화특강, 선배교사 맞춤형지도, 교수 및 전문가 특강을 통해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인성과 실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장학혜택과 더불어 사제동행 특강, 수업실연 컨설팅, 예비 교사 아카데미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재복 사범대학장은 "사범대학 최우수 평가와 높은 임용합격률은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전공 및 연계전공을 통해 중등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 등 진로 및 취업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체육회, 스포츠평정위 1차 회의 개최

고창군체육회는 23일 '스포츠공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홍기문 고창군자유도선수단 감독, 안정의 법무사, 배상수 고창초 육상코치, 황승수 고창시민단체 공동대표, 조수현 고창군체육회 이사, 김경춘 고창군 자전거협회 전임회장, 주현주 고창군체육회 부회장, 김성규 흥덕면 체육회장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성규 흥덕면 체육회장, 부위원장에는 황승수 고창시민단체 공동대표를 각각 위촉했다.

위원회는 조직 사유화, 인시비리, (성)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과 같은 스포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나 사건을 담당한다. 또한 제규정의 제·개정과 같은 법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표창·체육상 대상자 추천·정부 및 전라북도 포상대상자 추천 등의 포상사항과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성규 위원장은 초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고창에 깨끗하고 공정한 체육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교만 체육회장은 스포츠평정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고창군체육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단체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각 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완산구, 청소년 보호 홍보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신계숙)는 23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방문해 '청소년 보호 홍보'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전주 객사 부근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 완산구는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문구가 포함된 형광펜, 손소독 티슈 등을 배부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고민상담 전화(1388)를 홍보했다.

전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완산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각 기관의 청소년 보호 관련 고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추후의 캠페인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김윤상 기자



남부새마을금고학산지점, 평화2동에 성금 전달

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 이경춘) 학산지점(지점장 엄희상) 23일 평화2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사용해 달라며 사랑의 줌도리 성금 120만 원을 후원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남부새마을금고 학산지점은 11년째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매년 사랑의 줌도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12가정에 각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89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 운봉읍, 춘향골 곤달비 수확 한창

남원시 운봉읍에서는 빠른 봄맛을 느낄 수 있는 고급 산채인 곤달비 수확이 한창으로, 곤달비는 저온성 식물로 자연에서는 5월이 되어야 수확이 가능하나 삼중터널재배로 심어 2월부터 수확이 가능하여 3개월이나 빠른 봄맛을 느낄 수 있다.

향이 독특한 곤달비는 씹이나 무침, 장아찌로 다양하게 섭취 할 수 있으며,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및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풍부하여 환절기 나른함을 떨치고 삶의 활력을 찾는데 매우 유익하며, 1kg 한상자에 15,000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전북평생학습장학기금 모금 캠페인' 전개

전주대학교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전북 평생학습 장학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융합대학에서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전문인으로 거듭나길 원하는 만화도 및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 등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주대 교직원 및 재학생은 물론 만화도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기기부와 일시기부로 구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기부의 경우는 한 구좌당 매달 1만원씩이다.

2021년 연말까지 1억원 모금을 목표로 추진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기야 합니다